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 하 (문창수·안광현 옮김, 베드로서원)

39장 죄의 속박

『산상설교』 하권 제39장, 인쇄 117~130쪽 · 설교 본문 마태복음 6:19~24

> ❓ **돈이 덧없다는 건 다 아는데, 왜 나는 여전히 돈과 세상에 끌려다닐까?**

🧭 흐름 한눈에

로이드 존스는 마태복음 6:19~24의 직접 교훈(보물을 하늘에 쌓으라)을 앞 장에서 다루었다. 이 장에서는 그 밑에 깔린 암시적 교리를 꺼낸다. 이런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죄 때문이다. 죄는 다섯 가지로 일한다. 지성·감정·의지의 순서를 뒤집고, 눈을 멀게 해 뻔한 진리를 못 보게 한다.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을 수 있다고 착각하게 하고, 섬김받아야 할 것들의 종이 되게 하며, 끝내 사람을 완전히 파멸시킨다. 결론은 회복의 길이다. 중생으로 지성이 다시 바로잡히므로, 죄를 고백하고 눈을 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는 초청으로 설교를 맺는다.

📜 절별 정리

📜 1. 왜 이런 경고가 성경에 가득한가

로이드 존스는 본문에 두 층이 있다고 말한다. 하나는 세상 보물과 하늘 보물에 대한 직접적이고 실제적인 교훈이다. 다른 하나는 그 교훈을 주시면서 주님이 곁들여 다루신 가장 중요한 교리, 곧 죄와 그 결과다.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미 새 관점을 얻었으니 이런 경고는 필요 없다”고 말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모두 여러 모양으로 재물의 공격을 받고, 심지어 지배를 받고 있다. 이 현실을 설명하는 것은 하나뿐이다. 죄의 무서운 세력과 그것이 인류에게 남긴 결과다. 그래서 이 단락은

2.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죄와 그 결과다
3. 그리스도인도 재물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
4. “나는 이 교훈이 필요 없다”는 착각이다

> **마태복음 6:19~20**
> 땅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직접 명령
>
>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24**
>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결론. 죄의 문제가 여기서 드러난다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2. 죄는 사람 안의 질서를 뒤집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영·혼·육, 혹은 영·지성·몸으로 지으셨다. 가치의 순서는 영, 혼, 몸이다. 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이 바른 순서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부분은 지성, 곧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원래는 지성이 먼저 이해하고, 감정이 그것을 사랑하고, 의지가 실행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은 본문에서 순서를 반대로 말씀하신다. 마음(21절)이 먼저 나오고, 눈 곧 지성(22~23절)이 다음이며, 섬김 곧 의지(24절)가 마지막이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고 본다. 사람은 이제 이해력이 아니라 욕망과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불신자가 내세우는 정교한 지적 논리도 사실은 마음의 불경건을 덮으려는 시도다.

이라고 해 놓고 몇 쪽 뒤에서는 그것을 사실처럼 쓰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지성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일이다.

1. 원래 순서는 지성, 감정, 의지다
2. 주님은 마음, 지성, 의지 순서로 말씀하셨다
3. 이는 타락한 인간의 실제 순서를 보여 준다
4. 불신의 논리는 마음의 편견을 덮는 가면이다
5. 지성인을 자처하는 사람도 편견에 휘둘린다

> **창세기 1:27**
>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출발점
>
>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 **마태복음 6:21**
> 보물이 마음을 끌고 간다. 마음이 맨 앞에 선다
>
>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 **요한복음 3:19**
> 빛이 왔는데도 행위가 악해 어둠을 더 사랑했다. 정죄의 이유는 무지가 아니라 마음이다
>
>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하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 **시편 14:1**
>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
>
>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지성이 제자리를 잃으면 맹목이 따른다. 이 세상의 신이 불신자의 생각을 어둡게 해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외모를 자랑하지만 외모는 반드시 시든다. 돈은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 누구나 이 사실을 알지만, 불신자는 반대로 가정하고 살면서 서로 질투하고 모든 것을 희생한다. 로이드 존스는 조용히 앉아 자문해 보라고 한다. 삶은 반드시 끝나고 집도 자식도 소유도 두고 떠나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명백한 진리의 지배를 받으며 살지 않는다. “변화와 부패를 어디서나 보겠네”라고 찬송하면서도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같은 맹목은 가치를 비교하는 데서도 드러난다. 한정된 시간과 끝없는 영원은 비교할 수조차 없는데 우리는 시간에 속한 것에 몰두한다. 빛이신 하나님과 어둠의 가치도 제대로 가늠하지 못한다. 사람과 그 행복을 위해 살면서 하나님은 “아플 때나 죽을 때” 찾겠다고 미룬다.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보다 세상 지위를 더 탐한다.

1. 죄는 마음을 통해 지성을 눈멀게 한다
2. 외모·돈이 사라진다는 걸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는다
3. 시간과 영원의 가치를 거꾸로 매긴다
4. 빛보다 어둠을, 하나님보다 사람을 택한다
5. 하나님을 임종 때로 미루는 태도도 맹목이다

> **고린도후서 4:3~4**
> 이 세상의 신이 생각을 어둡게 해 복음의 빛을 못 보게 한다
>
> 3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 **마태복음 6:19**
> 좀·동록·도둑. 땅의 보물은 반드시 사라진다
>
>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로마서 8:17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영광. 세상 지위와 비교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마태복음 5:5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탐하지 않는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 4. 섞일 수 없는 것을 섞으려는 착각, 그리고 교회

죄의 맹목은 정반대인 것들을 섞을 수 없다는 사실도 못 보게 한다. 더 나쁜 것은 섞는 데 성공할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한다는 점이다. 로이드 존스는 “두 정반대의 것 사이에 중용은 없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리를 끌어온다. 빛과 어둠을 섞으면 빛도 어둠도 아닌 것이 된다. 하나님과 재물도 마찬가지다. 사랑은 배타적이고 절대적인 것을 요구하므로 한쪽을 사랑하면 다른 쪽은 미워하게 된다. 타락한 사람은 둘을 한꺼번에 보는 '난시'를 오히려 영리함이라 자랑한다.

그를 두렵게 하는 것은 이 문제가 세상만이 아니라 교회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이다. 여기서 '세상'은 큰 죄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정당한 것들을 가리킨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교회를 망쳐 온 것은 교회와 세상 사이의 끊임없는 타협이었다. 교회를 세속적 방법으로 유지하려 하면 성공처럼 보여도 교회는 나아지지 않는다. 교회는 영적이므로 영적인 방식으로만 양육되고 유지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것을 인정할 때 부흥이 시작된다.

1. 정반대 사이에 중용은 없다

4. 콘스탄티누스 이후 교회는 세상과 타협해 왔다
5. 교회는 영적 방식으로만 세워진다

> **마태복음 6:24**
>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섞을 수 없음의 직접 근거
>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 **마태복음 6:22~23**
> 성한 눈과 나쁜 눈. 둘로 보는 시력은 온몸을 어둡게 한다
>
>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사랑은 배타적입니다."

📜 5. 섬김받아야 할 것들의 종이 되다

음식, 옷, 가족, 친구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라고 주신 선물이다. 대부분 하나님의 친절과 은혜의 표현이다. 굶주림, 목마름, 성(性) 같은 욕망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문제는 이것들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그 지배를 받는 순간 노예가 된다는 데 있다.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을 숭배하고,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사람의 주인이 된다. 로이드 존스는 이것을 죄의 가장 몸서리쳐지는 모습 중 하나로 본다.

1. 세상의 좋은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2. 욕망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3. 지배받는 순간 노예가 된다

마태복음 6:24

'섬긴다'는 말 자체가 재물이 주인 자리에 앉는다는 뜻이다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섬기도록 작정되었던 것들이 그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 6. 죄의 끝은 완전한 파멸이다

에덴에서 뱀을 통해 들어온 죄는 사람을 파멸시키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다. 마귀는 하나님을 미워하며 하나님이 지으시고 기뻐하시는 모든 것, 특히 사람과 세상을 망치려 한다. 땅에 보물을 쌓은 사람은 마지막에 가장 강한 원수인 죽음과 마주하고, 자신이 벌거벗은 영혼 말고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한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평가 기준이 되는 질문을 던진다. "죽을 때 나는 이것들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는가?"

더 무서운 것은 평생 철저히 잘못 살았음을 끝에 가서야 아는 것이다. 몸의 등불인 지성이 욕망에 왜곡되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현대인은 자기 지성 때문에 하나님을 거부한다고 믿고, 종교를 비웃고, 현재를 위해 살면서 그것을 합리적이라 확신한다. 그러나 그는 끝에 가서야 탕자처럼 정신이 든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는 날마다 "다 괜찮다"고 하다가 지옥에서야 자신이 평생 바보였음을 깨닫고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 달라고 간청했다. 사탄의 가장 간교한 일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믿게 하면서, 실제로는 사람을 욕망의 동물로 만드는 것이다. 재물을 섬기다 죽은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그분의 진노 아래 놓인다.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버지가 그에게는 낯선 분이 된다.

1. 마귀의 목적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의 파멸이다
2. 죽음 앞에서 벌거벗은 영혼만 남는다

5. 부자처럼 끝에 가서야 깨닫는 비극이 있다

창세기 3:1

에덴의 뱀. 파멸시키려는 세력의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태복음 16:26

온 세상을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한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태복음 6:23

속의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한가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누가복음 16:19~31

부자와 나사로. 죽은 뒤에야 자기 어둠을 본 사람

19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20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21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23 그가 음부에서 고통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24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

누가복음 15:17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요한복음 3:36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 재물을 섬긴 자의 최종 상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마태복음 10:30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아버지. 그런데 그에게는 낯선 분이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죽을 때 나는 이것들을 얼마만큼 가지고 갈 수 있는가?"

📜 7. 회복의 길: 성한 눈을 주시는 성령

로이드 존스는 "여러분의 지성을 믿지 말라"고 경고한다. 죄 아래 있는 지성은 가장 큰 위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면 지성은 다시 중심을 잡고 사람은 합리적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눈물 짜는 감상이나 '민중의 아편' 같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보는 것은 비극적인 착각이다. 로마서 6:17이 그 모범이다. 교리가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믿고 순종했다. 지성, 감정, 의지의 원래 순서가 회복된 것이다. 성령이 생각을 맑게 하시면 지성이 어둠의 편견에서 건짐받아 진리를 보고 사랑한다. 이것이 중생의 결과로 일어나는 개심이다. 설교는 초청으로 끝난다. 세상을 섬기고 땅에 보물을 쌓아 왔음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에 관한 진리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을 보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새 사람이 되는 길을 보여 달라고 구하라.

1. 죄 아래의 지성은 믿을 수 없다

3. 기독교는 감상이 아니라 진리를 이해하는 신앙이다
4. 진리는 먼저 지성으로 받는다
5. 고백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라

> **로마서 6:17**
> 전해 받은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했다. 지성, 감정, 의지의 회복된 순서
>
>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 **마태복음 6:22**
>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성령이 주시는 회복의 그림
>
>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 오해와 반론

📖 용어

타락
아담의 범죄로 인간 본성 전체가 죄에 물들어 하나님이 주신 질서가 무너진 사건이다.

하나님의 형상
사람이 하나님을 닮게 지음받은 것으로, 로이드 존스는 특히 생각하고 추론하는 지성에서 이를 본다.

지성·감정·의지
이해하는 능력, 느끼고 사랑하는 능력, 실행하는 능력이다. 원래 이 순서로 작동하게 지음받았다.

성한 눈

중용
양극단 사이의 가운데 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반대인 것 사이에는 중용이 없다고 했다.

세상
이 설교에서는 큰 죄가 아니라 그 자체로는 정당하지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다.

중생
성령이 죽은 영혼을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일로, 지성이 다시 진리를 보게 되는 출발점이다.

개심
중생의 결과로 지성이 어둠에서 건짐받아 진리를 보고 사랑하며 돌아서는 일이다.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재물에 대한 경고가 필요한 이유는 죄의 세력 때문이다.
- 죄는 지성·감정·의지의 순서를 뒤집어 사람을 욕망의 지배 아래 두고, 뻔한 진리조차 못 보게 한다.
- 하나님과 재물은 섞을 수 없다. 섬김받아야 할 것들을 섬기는 삶은 결국 벌거벗은 영혼과 하나님의 진노로 끝난다.
- 중생으로 지성이 회복될 때 사람은 진리를 보고 사랑한다. 그러므로 세상을 섬겨 온 죄를 고백하고, 눈을 성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마틴 로이드 존스 『산상설교』(베드로서원, 문창수·안광현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